

# 방음시설, 완충지대-규정 통일화 시급

도시 미관을 해치고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공도로 내 방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완충 공간과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산정기준도 현재 30년에서 6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소음 측정과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가중되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정 통일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유신엔지니어링 이이수 호남본부장은 "도로 경계선과 공동주택 외벽까지 거리가 짧게는 6m, 길게는 70m로 들쭉날쭉하고, 지역 특색에 맞지 않는 디자인, 유지관리비 혈세 낭비, 도시미관 저해와 조망권 침해까지 방음시설이 지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차로 폭 축소와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강풍 등 재해발생 시 안전문제,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방음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완충녹지와 공공공지 등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유지관리비 산정기간을 성능평가(30년) 2주기에 해당하는 60년으로 확대할 것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동현 광주경찰서 사무처장도 "간선도로 인근에 공동주택 건축을 인·허가할 때 최소 이격거리 규정을 뒤 소음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미스매치도 도마에 올랐다.

방음벽과 방음터널 관련 소음 규정은 현행 주택법에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1~5층은 65db 미만, 6층 이상은 45db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모든 층의 외부 소음도를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5db로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주택법이 적용되지만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다.

김남균 광주시 도로과장은 "공동주택 인·허가 기관과 환경정책 부서에서는 소음측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호 시 주택담당 사무관은

## 이격 거리 제각각·혈세 낭비·미관 침해 등 주택법-환경기본법 미스매치, 집단소송 발미

"사업승인 시 방음벽 설치를 전제로 한 예측 결과와 사용검사 단계에서의 측정치가 다를 수 있고, 입주 후 차량증가 등으로 소음도가 높아지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간선도로변 공동주택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2012년 2월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2, 3단지 250m구간에 56억원을 들여 소음방지 터널을 설치하는 등 2000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260억원을 투입해 방음터널 8개소 2.9km, 방음벽 106개소 26km 가량이 만들어졌거나 공사중이다.

서은홍 기자



점점 가까워지는 2018년 25일 오후 경기 수원 장안구 소재 황금종합캐나다 달력 전문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다양한 달력들을 살펴보고 있다.

## 광주보건환경연 '뜨뜨가무시증 주의보'

환자 발생 10월~11월 집중...매개체 탈진드기 급증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뜨뜨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 매개체인 탈진드기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뜨뜨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탈진드기 유충에 의해 발생한다. 탈진드기는 10~11월에 가장 많이 채집되며 뜨뜨가무시증 환자도 90%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지역 2곳

에서 들쥐에 기생하는 탈진드기의 개체수를 확인한 결과 10월 들어 218 개체가 발견돼 지난 9월 91 개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뜨뜨가무시증 환자는 올해들어 지난 15일까지 519명에 달해 전국 환자 2041명의 2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083명(전국 1만1105명), 2015년에는 2156명(9513명)이

발생했다. 뜨뜨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

또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놓는 행동은 삼가고 뒷자리나 신문지 등을 이용해 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신봉우 기자

## 朴정부 보수단체 지원 100억대...삼성·현대까지 동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대기업에 압박해 특정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상대로 정부 기관이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게 한 것이 범죄 핵

심"이라며 "관계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장충기 전 사장을 소환하는 등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 당초 파악했던 보수단체 지원금 68억원 외에도 기업이 별도로 보수단체에 지원한 돈이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보수단체 지원액이 어렵잡아도 1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 것이다.

뉴시스

## 광주서 통근버스 교통사고 23명 부상

광주의 한 도로에서 출·퇴근용 관광버스와 승용차량이 충돌해 23명이 다쳤다.

25일 오전 8시18분께 광주 남구 칠석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최모(69)씨가 운전하는 통근버스와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최씨 등 22명과 승용차량 운전자 1명 등 총 23명이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통근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승객들이 빠져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방지 등을 이용해 유리창문을 깨고 승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근버스는 광주에서 전남 나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통근차량이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안갯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광주 모 회사에 강도 침입 금품 강탈

광주의 한 회사에 강도가 침입,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북구 한 화학 회사에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둔기로 직원을 위협,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남성은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했으며, 키 170cm 가량에 마스크와 흰색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 수표 26장 발행 뒤 부도 50대 여성 영장

광주 관산경찰서는 25일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갚지 않은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계 당좌수표 26장(5억3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뒤 일부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당좌수표를 무작위로 발행하다 사업이 어려워져 지난해부터 회사를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돌격타기를 해온 A씨는 채무 누적으로 3개월(수표 상환 기한) 안에 지급액을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형택 기자

## 여자친구 어머니 흥기로 찢른 10대 붙잡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흥기로 찢르고 달아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공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어머니(44)를 찢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교제를 반대하고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 쓰레기차 철제 덮개 떨어져 1명 사망

쓰레기를 운송하던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9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상수도사업본부 삼거리 인근 충정로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1t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에서 가로 56cm, 세로 260cm의 상판 철제 덮개가 인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떨어지는 상판 철제 덮개에 직접 부딪힌 A(43)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나머지 5명은 팔발과 어깨 등에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 IN  
신나는 진료, 건강한 생활

#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독이켜 보면  
늦치고 지내, 그래서 있고 지내 시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상대환원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본말에는 검진 1인이 한정되었습니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